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2년도 제13호

대한체육회

2022년 대한체육회 정규직 신입 직원 공개 채용

김우종 스타뉴스 기자

대한장애인체육회

“패럴림픽 역사 바로세우기”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尹당선인에게 바란다

전영지 스포츠조선 기자

2022년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단양 수상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에 국비 15억원 투입

이병찬 뉴시스 기자

금성출판사

금성출판사, ‘선생님이 들려주는 스포츠 이야기’ 출간

신윤하 뉴스1 기자

대한당구연맹

“당구도 이젠 학교스포츠” 대한체육회 유청소년클럽리그 종목에 선정

김동우 MK빌리어드뉴스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2022년 대한체육회 정규직 신입 직원 공개 채용

대한체육회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대한체육회가 스포츠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

대한체육회는 "3월 31일부터 4월 14일까지 15일 간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총 20명의 분야별 유능한 인재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회계 ▲법학·법제 ▲기획·경영 ▲건축 ▲대기환경 ▲전산 ▲행정(체육전공) ▲회계(장애인전형) ▲기계설비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총 11개 분야로 나뉘며, 채용 인원은 분야별로 상이하다.

대한체육회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4월 14일까지 대한체육회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입사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채용 분야별 응시자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채용 홈페이지 및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한체육회 신입직원 채용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 입사 지원서 작성 시 학력, 성별, 연령, 출신지역 등을 작성하지 않도록 했다.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필기시험(일반직), 면접(1차 및 2차) 순으로 진행된다.

대한체육회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국제체육기구에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종합대회에 국가대표 선수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보급 및 확산에 힘쓰고 있는 공공 기관이다.

“패럴림픽 역사 바로세우기” 정진완 대한체육회장,尹당선인에게 바란다

"새 정부가 대한민국 패럴림픽 역사를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봄 기운이 솟아나는 3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에서 베이징패럴림픽을 마치고 돌아온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56)을 만났다. 2000년 시드니패럴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체육회, 문체부, 이천선수촌에서 실무와 행정을 두루 섭렵한 정 회장은 일 욕심이 많다. 지난해 3월 제5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 취임한 지 1년만에 두 번의 패럴림픽을 치렀다. 지난해 도쿄하계패럴림픽과 올해 베이징동계패럴림픽은 4년 전 평창패럴림픽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코로나 악재와 무관심 속에 치러진 대회에서 잇달아 '세계 41위' '노메달' 성적표를 받아든 '패럴림픽 레전드' 수장의 고민이 깊어졌다. 1시간을 훌쩍 넘겨 평생을 몸 바친 장애인체육 역사에 대한 애정, 장밋빛 미래를 향한 다짐을 쏟아냈다. 5월 출범할 새 정부에 대한 특별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두 번의 패럴림픽 통해 내린 결론은 국가대표 시스템 혁신"

정 회장은 두 번의 패럴림픽 후 "선수 출신 회장으로서 저조한 경기력과 코로나 시기에 더 잘 지원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이 컸다"고 털어놨다. 올림픽·패럴림픽에서 메달은 거들 뿐, 참가 자체로 의미 있고, 승패를 떠나 최선을 다한 선수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게 '시대정신'이다. 그러나 '패럴림픽 레전드' 정 회장의 생각은 확고했다. "그래도 국가대표 선수라면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도 4강에 올랐기 때문에 국민적 사랑을 받았고, 올림픽 쇼트트랙도 메달이 나오니 열광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 스포츠도 똑같다. 평창의 영광도 신의현의 노르딕스키 첫 금, 파라아이스키 첫 동메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장애인체육을 더 알리고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 우리가 성적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국가대표 시스템의 대대적 혁신을 예고했다. "장애인 국가대표는 종목별, 개인별 성적과 무관하게 동일한 보편적 지원을 받아왔다. 10년 이상 이 체제가 이어지다 보니 실력이 하향평준화됐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경우, ABC 3개 그룹을 두고 평가를 통해 각 종목을 승강제 방식으로 지원한다"면서 "좋은 경기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 회장은 "종목별 차등 지원책은 내년부터 적용할 것이다. 이미 연구는 끝났다. 종목단체, 시도 장애인체육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올해안에 계획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 종목 신인선수 육성 사업을 통해 휠체어육상 이종구, 김병훈, 배드민턴 유수영, 정겨울, 노르딕스키 김윤지 등 실력 있는 어린 선수들도 나오고 있다. 2026년 밀라노, 2028년 LA패럴림픽에선 분명 다를 것"이라고 확신했다.

"남은 3년 임기내 이것만은 꼭 한다"

남은 3년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묻는 질문에 '일 욕심' 많은 정 회장은 "다섯 가지를 써왔다"며 뻑뻑한 A4지를 내밀었다. "첫째는 스포츠과학 지원 정착이다. 장애인체육회가 스포츠과학을 직접 선수촌 현장에서 종목별 선수들에게 맞춤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중이다. 둘째, 신인선수 발굴과 국가대표 훈련시스템을 개혁하겠다. 셋째, 스포츠 등급 분류사, 국제심판, 선수 출신 지도자 등 장애인체육 전문가를 양성하겠다. 넷째는 종목단체 인력 확충이다. 대한체육회의 경우 정규직 6명을 지원하지만 장애인체육회는 4명을 지원한다. 정책은 단순히 머릿수로 결정해선 안된다. 장애인은 보조인력이 더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장애인체육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패럴림픽 센터 건립"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장 계속

비장애인 학교에서 특수학급 장애인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가 행복한 '유니버설' '통합체육' 프로그램 확대에 대해서도 공감과 지지의 뜻을 표했다. 정 회장은 20대에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후 우연히 휠체어농구 TV 중계를 접한 후 수영과 휠체어육상을 시작했고, 사격 국가대표로 새 세상을 만난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하면서 "장애인에게 스포츠는 지옥같은 절망을 희망의 세상으로 이끄는 매개"라고 했다.

이어 정 회장은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평창패럴림픽, 스페셜올림픽 당시 국민적 관심에는 미디어 홍보가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올해는 패럴림픽, 데플림픽, 장애인아시안게임이 겹친 해다. 더 많은 장애인들을 집 밖으로 이끌기 위해,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패럴림픽 역사 바로 세우기"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정 회장은 인터뷰 말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과 함께 소중히 간직해온 1988년 서울패럴림픽 마스코트 배지를 꺼내보였다. "세계 패럴림픽사에서 대한민국은 지대한 공헌을 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한곳에서 열린 건 1988년 서울이 최초다. 2018년엔 30년만의 평창패럴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역사를 모두가 금세 잊어버렸다. 어디서도 패럴림픽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아쉬워 했다. "이탈리아패럴림픽위원장을 만났는데 '1988년 서울' 이야기부터 하더라. 외국인들은 서울패럴림픽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정작 우리는 잊었다. 동하계패럴림픽을 모두 치른 나란데 올림픽공원 안에 '올림픽'은 있지만 '패럴림픽'은 없다. 어떤 상징물도 없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정 회장은 새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0년간 잊혀진 패럴림픽 역사를 바로 세워주기를 열망했다. "올림픽공원에 패럴림픽의 역사를 기억할 패럴림픽센터를 지어주셨으면 한다. 패럴림픽 레거시 사업을 하고, 자랑스러운 장애인체육 역사를 후대에 남기고, 패럴림픽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국민들의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당선인께서 패럴림픽의 위대한 역사를 꼭 한번 돌아봐주시고 인수위 공약에도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정 회장은 5월 브라질 카시아스-두술에서 열릴 '청각장애인 올림픽' 데플림픽을 앞두고 같은 관심도 요청했다. 4월 18일 이천선수촌서 열릴 결단식에 정중히 초대의 뜻을 전했다. 특히 소외 계층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향해 장애인체육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요청했다. "여사님께서 코로나 속에 힘든 훈련을 이겨내온 우리 청각장애인 태극전사들을 직접 찾아주시고 격려해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프로필

1966년 3월 4일(음력) 전남 함평 출생

서울 대성고-용인대 특수체육학 학사-한체대대학원 체육학 석사- 용인대 대학원 체육학 박사수료

2000년 시드니패럴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2006~2011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부장

2011~2012년 충남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2012~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2017~2021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장

2021년~ 한국척수장애인협회장

2021년~ 제5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단양 수상스포츠관광산업 육성에 국비 15억원 투입

충북 단양 단양강(남한강) 수상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에 내후년까지 국비 15억원이 투입된다.

30일 단양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2022년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공모에서 군이 응모한 '수상스포츠의 메카-단양 구경 가자'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문체부 등은 이 공모를 통해 스포츠 자원과 지역의 핵심 관광자원이 융·복합된 신규 스포츠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한 단양에는 올해부터 3년 동안 매년 5억원을 지원한다.

군은 단양강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우수한 수상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해 수상자전거, 카약, 철인3종경기를 결합한 이색스포츠 '익스트림 수상스포츠대회'를 국내 최초로 개최할 계획이다.

단양강 일원 별곡생태체육공원 계류장, 상진나루 등을 활용한 수상자전거·페달보트 체험, 카약아카데미, 씬머페스티벌 등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11월 카누 국가대표 선수단이 전지훈련장으로 선택한 단양강은 오는 5월 열릴 전국 카누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선정되는 등 수상 레포츠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단양은 천혜의 풍광 속에서 수상 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는 도시"라면서 "공모사업 선정을 발판으로 군은 수상 스포츠산업 인프라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성출판사, '선생님이 들려주는 스포츠 이야기' 출간

금성출판사는 청소년, 교사, 일반인 모두를 위한 스포츠 지식 도서 '선생님이 들려주는 스포츠 이야기'를 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신간은 현직 체육교사이자 신문에 스포츠 칼럼을 연재했던 조보성 교사가 다년간 학교 수업 경험을 살려 50여 종목의 스포츠와 관련된 지식을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한 스포츠 지식 도서다.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어려워진 청소년, 비대면 체육수업을 진행하는 체육 교사 및 스포츠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 관심 가질만한 주제로 구성됐다.

축구, 야구, 배구 등 인기 구기 종목을 비롯해 스노보드, 쇼트트랙 등 동계 올림픽에서 주목받은 종목 등 총 50여 종의 스포츠를 소개한다. 스포츠와 융합된 인문, 사회, 과학 지식도 수록했다.

특히 단순히 개념 설명에 그치지 않고 '차범근, 손흥민, 박항서 등 대한민국 축구 영웅들의 이야기', '알쏭달쏭한 야구의 사인, 심판의 수신호' 등의 소재와 사례를 사용했다. '스포츠로 촉발된 국제 분쟁 사례', '빙상 경기장 얼음을 만드는 과정' 등 인문, 사회, 과학 과목과 융합된 내용도 저자의 오랜 학교 수업 노하우를 살려 알기 쉽게 담았다.

각 주제의 첫 장에는 QR 코드를 추가해 내용 이해를 높였다. 스포츠 지식과 관련된 영상, 기사, 관계 기관 자료 등이 수록되어 학교 등에서 비대면 체육 수업, 신문활용교육수업, 체육 교과 진로 상담 시에도 쓰일 수 있다.

금성출판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체육활동, 야외활동이 줄어든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을 위해 체육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신뢰성 있는 스포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출간하게 됐다"며 "흥미로운 실생활 사례와 개념을 쉽게 풀어낸 저자의 유려한 글솜씨를 통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스포츠 지식을 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구도 이젠 학교스포츠” 대한체육회 유청소년클럽리그 종목에 선정

당구가 유·청소년클럽리그에 선정되며 사실상 학교스포츠 종목으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당구연맹(회장 박보환·이하 당구연맹)은 당구가 최근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시행하는 유·청소년클럽리그(i-League) 신규 종목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유·청소년클럽리그’는 유·청소년 스포츠동호인들의 생활체육리그 개념으로, 지난 2013년 축구 종목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 이 사업은 기초리그 활성화를 통해 생활체육 종목 저변을 확대하고 유·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참여 기회를 부여, 유망주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구연맹은 “그 동안 당구종목이 학교스포츠 진입에 우여곡절이 많았다”면서 “이번 유·청소년클럽리그 종목 선정은 당구종목이 학교스포츠에 공식 편입된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당구 100년 역사의 기록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구종목의 경우 지난해 9월24일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올 3월25일부터 학교 근처에도 제한없이 당구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 점도 공모 선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구연맹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과 당구종목의 이번 공모 선정은 (당구가) 유·청소년 클럽리그를 운영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게 됐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당구연맹은 이번 공모에 오는 2026년까지의 유·청소년 클럽리그 계획을 담은 ‘KBF i-League 로드맵’(이하 i-리그 로드맵)을 제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내년 중반기까지 진행되는 1단계 ‘기초’(Foundation) 단계에서는 유·청소년의 유입과 재미에 중점을 두고, 2단계(2023년 중반기~2024년)에서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경계에 재능있는 선수를 발굴, 육성하기로 했다.

마지막 3단계(2025년~2026년)에서는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간의 전문(엘리트) 시스템을 갖춘 계획이다.

당구연맹은 운영 첫해인 올해에는 ‘i리그’ 운영 준비와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학기 중 주말리그와 방학 중 팀리그를 함께 진행하고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큐페스타’(Q-Festa)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대한당구연맹 박보환 회장은 “유청소년클럽리그 선정은 당구가 새롭게 도약하는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KBF디비전을 통해 축적한 자산을 바탕으로 유청소년 스포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취업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29_0001811571&cID=10501&pID=10500

국민체육진흥공단 여자축구단, 2022 WK리그 홈 개막전으로 막 올려

https://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2204040641003&sec_id=561501&pt=nv

인천 중구, 하늘체육공원 시설확충사업 '순항'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30_0001813509&cID=14001&pID=14000

51회 충북소년체육대회, 1~10일 무관중 경기 개최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0403010000322>

충주시, 어린이집 생활체육 활동 지원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09089>

경북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선정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0404010000453>

경기도체육회, 2022 스포츠 유망선수 발굴·육성 사업 대상 선정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7985>

민간체육시설 방역 포인트 지원 사업 모집

<http://mksports.co.kr/view/2022/286921/>

강원 홍천군에 국내 첫 탁구전용 체육관 들어선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8114400062?input=1195m>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